

세이비어 교회 소식

-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9월 구역예배 안내
각 구역 별로 구역예배를 드리신 후에 구역장님들께서는 구역보고서를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을 성경공부(크로스웨이) 안내
크로스웨이 성경공부가 진행 중입니다.
(목요일 오전 10시, 토요일 새벽예배 후)
- 새가족반 모임 안내
새가족반 모임이 주일 예배 후에 1층 친교실에서 진행됩니다. 새가족반 팀(허도행 집사, 임수영 집사)이 함께 수고해 주십니다.
- 이번 주 친교
이번 주 친교는 추석인 관계로 교회에서 준비합니다.
다음 주 친교는 플러싱 구역입니다.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9월 봉사위원

일자	주일기도	수요예배	친 교	안 내
9/23		이경희	교회(추석)	한순자
9/30	배한우	임수영	플러싱	한순자

예배 및 모임 안내

모임	시간	장소
주일예배(1부)	주일 오전 11시 30분	친교실
주일예배(2부)	주일 오후 1시 15분	본당
수요기도회	수요일 오후 8:00	본당
토요새벽기도회	토 새벽 6:00	본당
주일학교	주일 오후 1:15	친교실
성가연습	주일 오전 11시	성가대실
성경공부 (방학 중)	목요일 오전 10시 목요일 저녁 8시 토요일 오전 8시	1층 친교실

주일설교요약

제목 : 예수님의 발 아래로

본문 : 누가복음 8장 26~39절

기도제목 : 1. 전능하신 주님께서 내게 오셔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소서.

2. 내가 누리는 이 구원이 가장 귀하고 복된 것임을 알게 하소서.

3. 예수님의 발 아래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소서.

요즘 세상은 귀신에 대해서 그렇게 나쁘게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귀신도 우리 인간처럼 좋은 사람이 있고 나쁜 사람이 있는 것처럼 귀신도 그러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귀신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보다 더 능력이 많은 존재로!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도 있는 존재로 그려지는 것이 오늘날 세상의 풍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귀신에 대하여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나요? 성경이 말하는 귀신은 언제나 부정적인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갈릴리 호수에 접한 거라사 지방에 살았던 군대 귀신들린 한 청년을 고쳐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거라사에 살았던 광인을 찾아오셔서 그를 온전케 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하여 3가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속에서 우리의 눈에 들어오는 장면은 거라사 광인의 비참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귀신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압도적인 분이 라는 사실입니다. 27절의 말씀을 비추어 보면, 귀신이 들린 청년은 지금 완전히 고립되어 있고 비인간적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에서 살았던 청년은 지금은 집을 떠나서 옷을 입지 않고, 죽음의 세계, 즉 귀신들의 세계인 무덤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 청년을 괴롭히던 귀신은 하나가 아니라 군대와 같이 수 많은 귀신들이었습니다. 여기에 군대라고 쓰인 단어는 로마 군대의 군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군단은 6000명으로 구성이 됩니다. 이렇게 강력한 귀신과 예수님과의 한 판 대결이 벌어질 것 같았는데, 예수님과 귀신이 대결하는 장면을 보며 너무나 심하게 그 싸움이 진행되는 것을 봅니다. 귀신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바로 꼬리를 내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 예수님과 귀신과의 대결은 호랑이와 개와의 싸움보다 더 압도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이 이런 저런 문제를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 속에서 큰 권능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군대 귀신 들린 청년은 그 누구도 손을 쓸 수 없는 가장 비참하고 가장 나쁜 상황을 처한 자였습니다. 최악의 그런 상황을 주님께서 단번에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시키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무리 나쁜 상황이라도 우리 주님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찾아 오시는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속에 주님의 크신 권능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두 번째는 이 놀라운 구원의 광경을 목격한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하였다는 부분입니다. 군대 귀신들린 청년을 온전케 하시는 이적을 베풀었지만, 그러나 그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을 외면했습니다. 아마도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인 이유였을 것입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처음 도착하자 일어난 사건인데, 이제 본격적으로 도시 안으로 들어가시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두려움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돼지를 잃었는데, 그 다음은 무엇을 잃을지, 몰로 귀신들린 청년은 회복이 되었지만, 그들의 눈에는 청년의 생명보다 2천 마리의 돼지가 눈에 더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구원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는 이 구원은 참으로 귀하고 복된 것입니다. 그 가치를 아는 자만이 우리를 찾아 오시는 주님을 만나고 그 분이 베풀어 주시는 구원을 받고, 그리고 그 구원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 받은 청년에 관한 것입니다. 이 청년이 예수님을 통하여 받은 구원이 무엇인가? 입니다. 귀신에 사로잡혀 살던 청년이 이제는 귀신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청년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귀신들린 청년이 구원을 받은 후에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 있다는 표현이 눈에 들어옵니다. 진정한 구원은 병에서 나음을 입은 것! 죽음에서 건짐을 받은 것! 귀신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게 된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예수님과 새로운 관계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단 한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 어느 한 순간! 어느 날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 있으신가요? 지금 내가 그 분께 속해 있다는 것입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신 것을 일일이 고하라 하시니, 저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하신 것을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을 받아 누리고 살아가는 자들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신 큰 일을 잊지 않으며 날마다 하나님의 큰 일을 간증하며 살아가는 세이비어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 헌금

헌금은 본당 입구 헌금함에 넣으시면 됩니다

구역별 선교사

롱아일랜드 구역	베이사이드 구역	플러싱 구역	우드사이드 구역
순회 선교	우간다	브라질	인도

담임목사 정요한

시무장로 최홍만 배한우

교육전도사 김차인 김호진 지휘자/반주자 김타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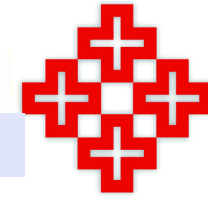
Address: 275 Lakeville Road

Great Neck, NY 11020

Tel : (718) 673-6448 / www.mysaviorchurch.com

2018년 9월 23일

주일예배



SAVIOR
세이비어 CHURCH
교회

	오전 11:30분(1부) 오후 1:15분(2부)	수요예배
예배로 부르심 Call to Worship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사무엘서 강해 말씀 /정요한 목사 기도: 이경희 권사
▲ 송영 Invocation	찬양대 Chorus	
▲ 고백의 기도 Confession of Sin	다같이 Together	
▲ 찬 송 Hymn	나는 예배자입니다	
▲ 신앙고백 Confession of Faith	사도신경 Apostles' Creed	
▲ 성서교독 Responsive Reading	34번(잠언 3장)	
찬 송 Hymn	397장	
기 도(Prayer)	허도행 집사	
성 경 Scripture	누가복음 8장 26~39절	
찬 양 Praise	세이비어 찬양대	
설 교 Message	예수님의 발 아래로	사도행전 강해
▲ 헌 금 Offering	71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토요일 새벽 오전 6시
▲ 찬 송 Hymn	375장	
▲ 축 도 Benediction	정요한 목사	
교회소식 Announcement	인도자	

▲ 표는 가능하시면 일어나심 (Standing, If possible)